

세희망의 길
VOL.17

세희망의 길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KT노동조합은 지금 새로운 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환경 등
 수많은 시련에 맞서 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노고를 결실로 응답받을 차례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상받아 조합원의 자부심을 드높이겠습니다.

KT노동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는 정책들로 참된 노동조합을
 구현하여 노동양극화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간부혁신을 통해 조합원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투명한 노사관계와 활발한 연대로
 노동조합의 가치를 재창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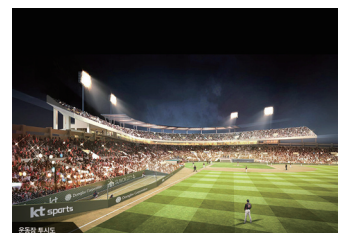
KT노동조합은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의 3년을 이끌겠습니다.

C o n t e n t s

vol. 17



KTTU NEWS	04	NEWS 2015 정기 지부대회
기획특집	08	33주년 노동조합 창립 기념 및 12대 위원장 취임식
도전, 60일	12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이슈 & 사회 01	14	'미생'과 '국제시장'은 대립이 아닌 소통의 리얼리즘
이슈 & 사회 02	16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국제유가 급락
현장 24시	18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지부 동수원운용팀 박용운 조합원
KTTU 카툰	22	2015 복지 분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KTTU NO.1	24	본사지부 지부장 및 지부집행위원
KTTU 리서치	28	한국 프로야구의 '10번째 심장' kt wiz
컬덕트	30	'워크맨'을 추억하며 내 손 안의 음악 여행이 시작되다
길따라 멧따라	32	봄 기운 가득한 3월 제철 맞은 건강 식재료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새희망의 디딤돌

희망과 결실의 노동조합 건설

2015년 제1차 전국 조직국장회의 개최

“2015 희망과 결실의 토대 만들자”

KT노동조합은 부산지방본부에서 ‘2015년도 제 1회 전국조직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2대 집행부 첫 전국조직국장 회의로 ▲지방대회 결과 ▲지방본부대의원대회 및 전국대의원대회 준비 및 점검 ▲노사 상생협 의회 경과 등 조합 주요일정 공유와 함께 ▲지방본부별 이슈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했다. 최창복 조직실장 서리는 “희망과 결실을 기조로 한 12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전국 조직이 단결하여 강한 결속력으로 현장을 안정시키고, 올해 조합 사업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희망의 토대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명절맞이 사랑나눔 조합간부 봉사활동

독거노인 찾아 ‘연탄 500장, 가전제품 3품목, 쌀, 라면’ 지급



KT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 강릉지부는 지난 2월 13일,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4가구를 찾아 생필품과 연탄을 지급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심우승 강원지방본부위원장 및 조합간부는 “외로운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2015년 UCC 정례회의 개최 및 주요활동 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논의

노사협의체 UCC 회원사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분당 본사에서 2015년 UCC 정례회의를 열고 전년도 회원사별 주요 협업활동 보고 및 2015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바자회, 베트남 글로벌 봉사활동, 오작교 연합미팅 등 전년도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2015년도 사업은 UCC 기반 강화를 위한 회원사 및 기금 확대 방안과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른 연중 Action-Plan을 시기별로 구체화한 주요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2015 GB(T) 시행관련 주요 개선사항

Basic Rule 강화 운영방안

2015년 GB(T) 운영 관련 성과보상 등 임직원 혜택 강화와 사업환경을 반영한 일부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주요 개선사항
 - 성과보상 등 임직원 혜택 강화
 - 2015년 사업환경 반영 일부제도 개선보완
 - 고객/임직원 참여 편의성 증대
 - Basic Rule
 - 강제가 아닌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
 - 일반정책과 GB(T) 차등운영 금지
 - 정도 영업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 ※ Basic Rule 위반사항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센터(GB.support@kt.com)를 운영 하오니 GB(T)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노사관계 주요쟁점 간담회 참석

비정규직·통상임금 해법 등 정부의 사용자·재벌편향 정책 우려

KT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노사관계 주요쟁점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노동계 이슈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대응점을 모색해 나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통상임금 분쟁의 확산 ▲실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일반해고요건 완화 등 최근 노사관계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노동계를 둘러싼 정부의 해법이 사용자와 재벌에 편향돼 있다고 입을 모으고, 더욱 적극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사용기간을 2년→4년까지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는 불안정 고용 상태를 2년간 연장하는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을 더욱 장기화하고 비정규직의 남용과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규직으로의 진입 기회 상실로 영구적인 비정규직화가 고용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역시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올해 KT노동조합은 노동계 전반의 간담회와 토론회에 적극 참석하며 노동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등 KT를 둘러싼 노동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15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특강 실시

정윤모 위원장 “KT조합원 자부심과 희망 견인하는 2015년 만들 것”

노동조합은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2015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174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조합의 신입사원 특강은 KT단체협약 제37조에 의거 신입사원교육 시 2시간 이상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교육도 ▲노동조합 역할과 역사 동영상 시청 ▲KT노동조합 구성과 조직소개 ▲KT복지제도 설명 ▲상조·웨딩지원(다온플랜) 서비스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강단에 선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신입사원들에게 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한 뒤 ▲KT노동조합의 연간 주요행사 ▲전국 현장 간담회 등 일상 조합활동 ▲한국노총 및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한 상급단체 활동 ▲홍보 및 봉사 ▲기업간 노사협의체 UCC 연대 등 주요활동 내역을 소개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2015년도 신입사원들을 반기며, “KT노동조합은 10년 전만 해도 강성노조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정치적 행보보다는 조합원들은 물론 고객인 국민, 다문화가정까지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2대 집행부 첫 해인 2015년은 무엇보다 KT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수수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하며 IT연맹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라며, “IT연맹 위원장으로서 5만 조합원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과 동시에 KT 조합원들의 자부심을 견인하는 희망과 결실의 2015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국IT서비스노동조합연맹, 1월 대표자회의 개최

정윤모 위원장 “2015년, IT연맹 희망의 해로 만들자”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여의도 연맹 회의실에서 1월 대표자회의를 열고, 보고안건 공유 및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후보배정 건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연맹은 ▲한국무역정보통신노동조합 등 회원조합 순방 보고 ▲정치아카데미, 403차 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정책홍보담당 공동 워크숍 등 한국노총 행사참여 보고 ▲여성간부 간담회 ▲UNI-KLC 집행위원 회의 결과 등을 공유한 뒤, ▲2015년 공동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응지침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심의·의결과정에서는 ▲한국노총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후보배정 ▲연맹 사무처 규정 개정 ▲UNI 탈퇴 ▲세종텔레콤노동조합 탈퇴 ▲연맹 파견실장 임용 인준건 등 총 5개 안건을 가결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2015년 노동계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규직 해고완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지난해 보다 더 큰 양보와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IT연맹 역시 각 단사별 상황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결실을 보여야 하는 동시에, 전체 노동계 투쟁에 힘을 실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참석한 단사 노동조합 대표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단결하고 단사별 정보를 공유해, 함께 위기를 돌파하는 굳건한 저력을 보여주자”며, “2015년을 IT연맹 희망의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2015년도 정기 지부대회 개최

전국 대의원 선출 및 조합 사업과 전망 논의

KT노동조합은 2월 5일(목) 전국적으로 2015년도 지부대회를 열고, 올해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고했다.



정 위원장 “결실 위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윤모 위원장은 조합원께 보내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지부대회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라고 강조하며,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돌 보를 놓는 것처럼, 조합원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대의원을 선출해 희망과 결실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3년이 지나고 조합원들께 또 한 번의 부름을 받은 현재, KT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도 많이 상승했고, 입지도 강화됐다”며, “이제 회사가 보상하고 양보할 차례이므로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힘을 통해서라도 우리 조합원의 삶과 일터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희망 위한 환경과 조건 마련, 이제 조합원과 함께 열매 거둘 때

부산지방본부 진주지부를 방문한 황성관 사무총장 서리는 “술한 시련과 곡절을 넘어 지금의 KT노동조합이 견재하듯이, 2015년에는 희망과 결실 위한 환경과 조건은 마련하여 조합원과 함께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둬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주지부 강동만 지부장은 “부족하나

더 많은 현장 정서를 직접 전달하는 충실한 메신저가 되겠다”고 발표했으며, 조합원들 역시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각 지부에서는 2015년 노동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를 진행, 총 24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6곳의 신설(엔지니어링센터) 지부 지부장을 선출했으며 1곳(북전주) 지부의 보궐선거를 치렀다. 지부대회에 이은 12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2월 25일~27일 지방본부별로 개최한다.

신설지부 선출 지부장 명단

- 신설지부: 6개 지역 엔지니어링센터
 - 박근우 (강북지방본부-강북엔지니어링센터)
 - 서정호 (서부지방본부-강남엔지니어링센터)
 - 유병철 (부산지방본부-부산엔지니어링센터)
 - 김성삼 (대구지방본부-대구엔지니어링센터)
 - 박태규 (전남지방본부-호남엔지니어링센터)
 - 오동윤 (충남지방본부-충청엔지니어링센터)
- 보궐선거: 임정택 (전북지방본부-북전주)

2015년 전국 대의원 선출결과

강북 (30명)	김재준(강북고객본부), 이완재(중앙), 안영환(원호), 김성배(여의도), 김동현(서대문), 전용섭(은평), 기남로(신촌), 이재형(광화문), 인윤식(동대문), 박종국(광진), 이주호(성수), 하태식(중랑), 박용성(노원), 김정호(도봉), 손영국(월곡), 김종성(강북), 이창주(고양), 박종욱(덕양), 이진구(파주), 이원용(의정부), 김산성(동두천), 이동철(포천), 진정현(구리), 정성호(남양주), 황건선(양평), 박철성(강북무선운용센터), 강윤식(서울중부유선운용센터), 김명수(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유지영(경기북부유선운용센터), 최호규(IP운용센터)	김동영(구미), 박명서(김천), 천명호(상주), 이원종(포항), 윤용현(경주), 최진환(울진), 이찬원(안동), 송홍경(영주), 윤원상(문경), 권오용(청송), 차용대(대구유선운용센터), 이준석(동대구유선운용센터), 이재연(경북유선운용센터), 김경호(대구무선운용센터)
강남 (27명)	박현진(강남고객본부), 손득모(송파), 박정상(강동), 유병탁(가락), 유광섭(강남), 전성욱(반포), 정차석(서초), 이상구(신사), 박성순(양재), 오은희(수원), 신양호(남수원), 이창일(동수원), 조성명(용인), 김용배(수지), 지영근(여주), 김학능(이천), 김재후(평택), 이송찬(안성), 정상철(오산), 남기형(화성), 허남일(분당), 오정근(경기광주), 이정형(성남), 이효근(하남), 허정식(강남무선운용센터), 정영근(서울강남유선운용센터), 황윤구(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	김만재(국제전화국), 민병훈(BizRC), 최종국(수납지원센터), 이영인(기업IP컨설팅센터), 한익희(IMO운용센터), 김형울(네트워크관제센터), 안이호(국제통신운용센터), 정주형(현장기술지원단), 김용범(융합기술원), 이성갑(Infra연구소), 김상현(Service연구소), 천성영(그룹인재개발아카데미), 김수진(구매지원센터), 김동현(본사)
서부 (31명)	김용철(서부고객본부), 김수홍(강서), 강일모(가양), 김혜광(목동), 최중문(구로), 김영필(금천), 한원호(개봉), 안진홍(영등포), 김진규(동작), 유희수(관악), 엄금용(대방), 최오희(안양), 임영락(서안양), 이평수(군포), 김덕기(안산), 유광림(동안산), 허준호(시흥), 박성산(부천), 차홍열(북부천), 민형식(부평), 김오철(계양), 이정각(인천), 박은규(연수), 박원호(주안), 김윤철(서인천), 김철호(김포), 안상호(항동), 윤용현(강서무선운용센터), 김성만(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 최희웅(인천유선운용센터), 허종욱(미디어운용센터)	이인철(전남고객본부), 박진수(북광주), 김광수(수원), 고일남(담양), 선종민(서광주), 강성봉(광주), 한승학(남광주), 정영근(나주), 박상수(목포), 홍유선(강진), 채희원(해남), 신봉주(순천), 심금식(광양), 김응연(여수), 김정필(호남무선운용센터), 류재수(광주유선운용센터), 박상운(전남유선운용센터), 박흥주(호남IP컨설팅)
부산 (38명)	명창욱(부산고객본부), 정정석(동부산), 김수택(양산), 박상일(동래), 이기학(연산), 김경철(기장), 최형진(서부산), 김진용(사하), 이동수(영도), 김동철(남부산), 유진철(해운대), 이성철(서면), 김미아(대연), 이창림(수영), 남상길(북부산), 황일용(김해), 고정규(구포), 김상찬(창원), 정성민(마산), 서명구(밀양), 박영용(진해), 윤해(함안), 백한준(울산), 임태일(남울산), 김석준(동울산), 이석원(언양), 강동만(진주), 김원용(거제), 김도형(통영), 권구호(사천), 김익중(거창), 박찬기(산청), 왕용길(부산무선운용센터), 최영철(부산유선운용센터), 김주경(경남유선운용센터), 최용석(울산유선운용센터), 이성동(부산국제센터), 이재수(부산P컨설팅)	박호남(전북고객본부), 윤기성(전주), 박동인(북전주), 진홍윤(남원), 노용환(익산), 김성수(군산), 이광욱(정읍), 정광모(김제), 김형선(전북유선운용센터)
대구 (25명)	이종협(대구고객본부), 추교권(동대구), 김중우(수성), 손상학(경산), 이영택(영천), 김수영(달서), 박순목(남대구), 하중열(중대구), 김주학(달성), 정영식(서대구), 허운하(북대구),	안상표(충남고객본부), 김경찬(대전), 박재용(용진), 윤용재(신탄진), 한금수(서대전), 김명길(서대전지점), 이광엽(유성), 성기세(세종), 장대연(논산), 김용섭(공주), 신선섭(천안), 김성수(아산), 조규정(남천안), 주현수(홍성), 윤효중(당진), 김성용(보령), 명노승(예산), 장동인(서산), 김용길(부여), 진주관(충청무선운용센터), 정학영(대전유선운용센터), 이종훈(충남유선운용센터), 권승태(충청P컨설팅)
충남 (23명)	장남전(충북고객본부), 이영무(청주), 이학승(서청주), 신한식(옥천), 최재용(충주), 송창규(제천), 이춘영(금왕), 장민철(진천), 김종원(충북유선운용센터)	충남 (9명)
충북 (9명)	이혁중(강원고객본부), 안상진(춘천), 윤필상(홍천), 황원중(화천), 권창순(강릉), 박광호(속초), 박한수(동해), 박준수(원주), 엄기현(평창), 박영섭(태백), 최희동(강원무선운용센터), 박재호(강원유선운용센터)	강원 (12명)
전남 (18명)	현성환(제주고객본부), 현성보(제주), 최태종(신제주), 이조희(서귀포), 김희철(제주네트워크)	제주 (5명)

KT노동조합 33주년 창립기념 및 제 12대 위원장 취임식

정 위원장 “노동자와 조합원이 행복한 사회 위해 새 희망의 디딤돌 되겠다”

진정한 연대와 소통, 화합의 자리였다.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조합원은 물론 노동자, 다문화 가족,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희망과 결실의 근간을 다지자고 입을 모았다. KT노동조합 창립 33주년 기념일이자 제12대 위원장 취임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화합과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새출발

kt 노동조합 창립 제33주년 기념 및 제12대 위원장 취임식



희망과 결실 위한 결의의 장

KT노동조합은 1월 6일(화)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33주년 기념 및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직 위원장과 12개 지방본부 위원장 및 전국 조합 간부를 비롯하여,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및 산하조직 대표자, KT 그룹사 노동조합, UCC 회사사 노동조합, MOU 체결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황창규 회장 이하 회사 임원진과 추미애, 홍문종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취임식에는 KT 노사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꾸준히 ‘다문화 화상상봉 봉사’ 활동을 펼쳐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30여 명의 가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황창규 회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굳은 믿음과 묵묵한 인내로 KT를 이끌어주신 조합간부와 임직원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한 뒤 “상생과 신뢰의 노사문화로 톱플 뭉친다면 2015년에는 KT가 세계 최고 IT 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칠 수 있을 것”이라며 12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미애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노동조합 역대 위원장은 물론, 황창규 회장님과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서니 국내 통신평등 역사가 살아 숨 쉬듯 감회가 새롭다”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되,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강한 노동조합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역시 “대표적 ICT기업인 KT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각오를 해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도 KT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노사 구분 없이 KT 울타리 안의 모든 종사원이 소통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화합하여 세계 일등 기업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노동 양극화 해소하는 참 노동운동 구현할 것

KT노동조합은 1982년 1월 6일 설립한 이래 1994년 직선제를 통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 국내 최대 노동조합으로 성장해왔다. 국가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척박한 노동운동계에 길을 내고 흠을 고르며 돌을 치우며 달려온 33년. 이제 KT노동조합은 사회적 지위도 많이 상승했고, 입지도 강화됐다. 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은 정윤모 위원장의 취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윤모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합원에게 희망과 결실의 실체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한 뒤, “조합원들의 지지는 고용과 복



지 등을 확실히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동지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12대 집행부가 나아가야 할 좌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노동자에 관심을 갖고 공존과 상생을 할 수 있는 참된 노동계의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와 정치계 종사원들뿐만 아니라 한-베트남 다문화 가족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KT와 한국 - 베트남 다문화 가족과의 인연은, KT노사가 주도하는 기업간노사협의체 UCC(Union Corporate Committee)의 ‘다문화 가족 화상상봉’ 봉사가 계기다.

UCC는 계층과 국경을 넘어 인간 가치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베트남 현지 봉사와 화상상봉 봉사를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자 다문화가족의 일원이기도 한 이자스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KT노사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각국의 이해를 한층 넓히고, 성공적인 다문화 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다문화 가족 대표로 연단에 선 ‘판단튀’씨의 소감도 뒤를 이었다. 판단튀씨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 일부 사람들의 편견으로 가슴이 아픈 날도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친정 부모님이 간절히 보고 싶었지만, 비용 때문에 차마 고향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KT노동조합에서 힘 써 주신 덕분에 한국에 시집 온 뒤 8년 만에 처음으로 드디어 고향에 다녀올 수 있었다며 애타게 그리운 가족과 재회한 그 심정은, 몇 마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벅찬 감동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KT노동조합과 정윤모 위원장은 그 동안 다문화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관계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공존과 상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한결같이 강조해왔다.

이날의 창립식 및 위원장 취임식은 양극화로 야기되는 사회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력을 갖춘 참된 노동조합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의 장이기도 했다.

행사를 끝까지 지켜본 한 외부인사는 “집행부에 대한 신임이 돋보인, 인상적인 창립식이었다”며 “향후에도 현 집행부가 구성원들이 믿어주는 만큼 빅이슈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합원

들의 입장에서 집행하고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잊지 않았다.

‘새희망의 디딤돌’ 희망과 결실의 노동조합 건설

행사는 곧이어 축하공연과 약 30분간 동영상 시청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그간의 KT노동조합의 활동과 집행부의 활약상 등이 집약되어 상영 되면서 노동조합의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시종일관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된 행사에는 조합원들의 힘찬 결의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엇보다 돋보였다.

KT노동조합과 정윤모 위원장은 이미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와 새로운 노동운동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조합원들로부터 받았던 질책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씩 실천에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과거의 관성을 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것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모토 아래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펼쳐 온 KT노동조합,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염원하는 조합원의 희망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열어갈 도약과 전진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KT노동조합 제11대에 이어 제12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정윤모 위원장과 집행부는 ‘새희망의 디딤돌, 희망과 결실의 KT노동조합 건설!’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총 6명의 표창 시상이 있었고, 수상 조합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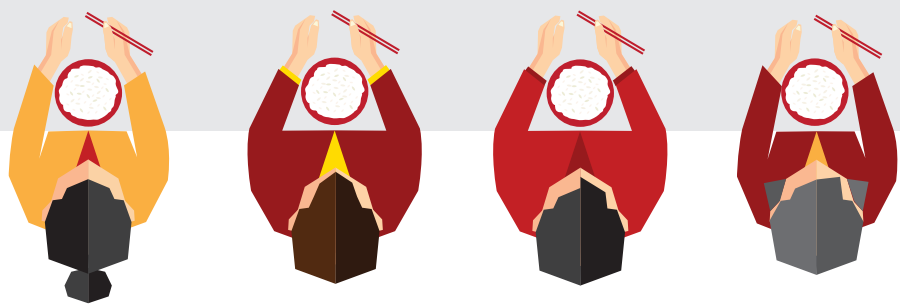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표창: 허정식(강남무선운용센터지부)
- 전국IT사무서비스연맹 위원장 표창: 황병하(전북고객본부지부)
- KT노동조합 위원장 표창: 채문식(강원·춘천지부)
- 고용노동부 장관상: 박소영(강북·구리지부), 정승환(강남·용인지부), 김영근(서부·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지부)





식구(食口)와 함께 먹는 즐거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혼자 음식점을 찾아 끼니를 해결하는, 이른바 '나홀로 식사족(族)'이 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가정, 무자녀 혹은 한 자녀 가정 등 핵가족화가 이유로 꼽힌다. 시간에 쫓기는 바쁜 일상과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기도 급히 한 끼 때운다는 개념이 강해진 탓도 있다. 또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거나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으려는 개인화 경향도 강하다.

혼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식점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한 일본식 라면집은 테이블을 독서실처럼 칸막이로 나눠 타인과의 불필요한 시선 교환을 줄였다. 음식 주문도 무인 발매기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고객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시선도 마주칠 일이 없다. 특히 젊은 층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나홀로 식사 문화는 점차 확산돼 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나홀로 식사보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 유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긴밀한 유대감의 상징이기

도 했다. 함께 하는 식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노르웨이 아그데르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밥을 먹는 아이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부모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식사를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과일과 야채, 곡류,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 아이들은 또한 단백질과 철분, 엽산,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 등도 더 많이 섭취한 대신 탄산음료는 더 적게 마셨다. 일주일에 5일 이상 부모와 함께 아침이나 저녁을 먹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비만 위험도가 훨씬 낮았다.

둘째,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가족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가족들과 어울려 밥을 먹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사람을 신뢰하며 대체로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밥을 먹는 동안 가족 간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며 정서적·신체적 스킨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셋째, 자녀가 더 건강해 진다

가족 식사는 어린이의 섭식 장애, 극단적인 다이어트, 영양 불균형 등을 막을 뿐 아니라 천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연구팀이 만성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관찰한 결과,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면 폐기능이나 천식 증상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천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도 줄어들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녀들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가족이 행복해진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흡연이나 음주, 약물중독, 우울증 등의 부적응 행동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가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가족 식사는 가족의 유대감과 응

집력을 강화시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증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자녀가 똑똑해진다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약물오남용예방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과의 저녁식사 횟수가 많은 학생일 수록 A 또는 B 학점을 받은 비율이 높은 반면 C 이하의 점수를 받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가족 식사 시간에 나누는 부모와의 풍부한 대화는 자녀의 어휘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 식사가 아이의 문제해결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학업 성취도와 연관이 있다.

여섯째, 예의바른 아이가 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을 중요시 했다. 대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 만큼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으며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여럿이 음식을 나눠 먹는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식사예절 뿐만 아니라 배려와 양보, 절제와 인내 같은 자세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의 정서와 인성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도전 60일! 참여 신청

'도전 60일'은 노보 소식지에서 제안하는 조합원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60일동안 진행 할 조합원의 도전을 받습니다.



■ 도전과제

- 다이어트
- 금주
- 회화능력 향상
- 금연
- 체력증진

※ 기타 개인적인 도전과제 모두 신청 받습니다.

■ 신청문의 및 접수

- 문의: KT노동조합 정책실 편집국장 김민수(mabin@kt.com, 031-727-2836)
- 신청방법: 도전과제 및 소속/이름/연락처를 기재한 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

■ 참고사항

- 도전과제 성공 시 10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 20일 단위로 전화 인터뷰 진행(진행 경과 체크)
- 필요 시 사진 촬영 및 인터뷰 진행

ISSUE & SOCIETY 01

미생과 국제시장은 대립이 아닌 소통의 리얼리즘



TV와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큼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요즘 들어 TV와 영화는 단순히 현실만을 보여 주지는 않는 모양새다. 드라마 <미생>에서는 정해진 직장 없이 한평생 알바로 살아야 하는 20대 취준생들의 고난을 보여주며, 영화 <국제시장>은 경제성장을 경험한 아버지 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의 조합은 주인공 세대들 간의 묘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젊은이들과 경제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 세대들의 불신과 갈등이 거꾸로 TV와 영화에서 현실세계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화면 속에 투영된 현실세계의 비극

시청자들은 <미생>으로부터 예전 드라마들에서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전개방식에 감탄했다. 특하면 물론, 재벌 2세와의 비밀 로맨스 등 막장 서사에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것. 바로 리얼리즘이다.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리얼리즘은 한국 드라마의 고질적 병폐인 막장 혹은 할머니로부터 듣는 옛날이야기에서 나올 법한 권선징악이라는 신물 나는 전개구조로부터 탈피해 현실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미생>은 방영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비정규직 200만 명 시대에 정규직이 되고파 눈물 흘리는 주인공 장그래의 시선과 동일시하는 20~30대 청년백수들로부터 말이다.

그리고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또 하나의 영화가 있다. 흥남부두에서 피난을 떠나 부산으로 흘러들어온 덕수, 외화벌이를 위해 목숨 건 파독광부 그리고 물자 수출을 위해 밤낮없이 코피 흘리던 산업역군들의 향수(?)를 담은 <국제시장>이다. 각 성제를 밥 대신 먹고 손가락 절단은 필수요, 수은중독은 선택 사항이던 시절 그때의 이야기는 60년대를 경험한 60대 이후 세대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을 선사한다.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군부독재, 그리고 동백림 간첩 조작 사건 등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60년대를 단순히 '성장'과 '수출'로 한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가 아픔이 아닌 추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없이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200만 장그래와 60대 덕수, 소통을 통한 공생

어쨌든 <미생>과 <국제시장>은 한 시대에서 만났다. 그리고 두 작품의 조우는 현실세계의 세대 간 대립이라는 묘한 결과로 이어졌다. 둘 다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 작품들은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청년실업으로 눈물 흘리는 2030과 과거의 향수에 감동을 느끼는 6070 세대 간의 현실세계의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대학가를 술렁이게 한 소위 최경환 노믹스 비판 대자보를 들 수 있다.

“우리가 취업 못하면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고요. 청년을 ‘봉’으로 알면 우리는 순순히 연금을 내주지도, 집을 사 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양산’ 정책은 대학생들에게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로 들릴 만하다. 청년실업에 괴로워하는 어느 대학생의 호소에 급기야 다른 대학생들도 대자보를 써서 붙였다.

“최 총리의 정책은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할 뿐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박래현, 고려대), “대출기준 완화로 내수활성화·가계부채 늘고 집값 올라가더니 서민들은 죽어나고 부자들만 좋아 죽네요.”(최휘엽, 경희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그런 마당에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기존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대학생들의 비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들과 서민, 6070과 2030이라는 세대와 계급 간의 대립으로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결국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과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적 기회를 조금이나마 치환시키려는 이들 사이의 묘한 긴장은 <미생>과 <국제시장>이라는 문화 마케팅에 힘입어 본의 아니게도 세대 간 적대적 관계로까지 확대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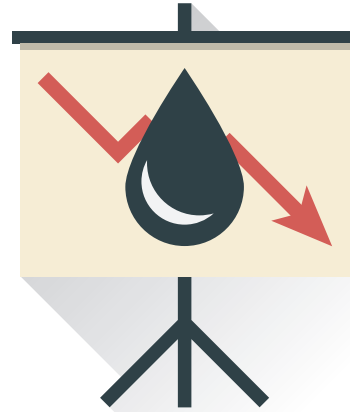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경제적 기득권층이라는 낙인이 찍힌 6070세대들이 그렇다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월남에서 다리 하나를 잃더라도 그들에겐 일하는 것만이 살길이었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영세민 아파트 한 채 여전한 내 집을 장만한 그들에게도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정리해고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구멍가게를 달아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들 역시 청년실업으로 좌절하는 2030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현상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왔다. 그러나 덕수와 장그래의 삶 중에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 비교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이 있을까. 역지로 이분법을 들 이대면 갈등은 필연이 된다.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 대로, 자식은 자식 세대대로 각자의 상황에 따른 고충과 애로를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소통의 길이 열린다. 우리가 국제시장과 미생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소모적인 흑백 논쟁이 아니라, 서로 미처 몰랐던 아픔을 이해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아픔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 토록 하는 그 역할을 때맞춰 국제시장과 미생이 하고 있다.

ISSUE & SOCIETY 02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도 주유소의 기름값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해질 만큼 기름값이 떨어졌다. 유가 하락은 가계의 실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과연 우리 경제에도 좋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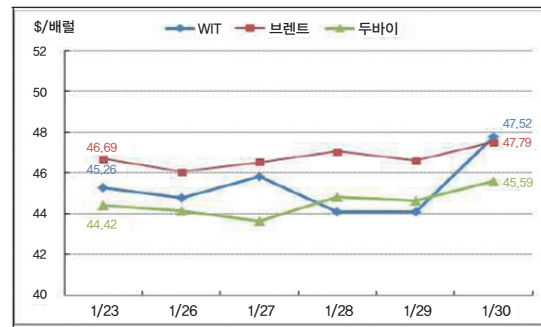
국제유가 하락 원인과 전망

국내 휘발유의 주간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1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며 최근(2월 초) 다소 주춤한 기세다. 국제유가가 1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40달러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오르는 등 급격한 가격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유가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에 포함된 세금 계산법으로는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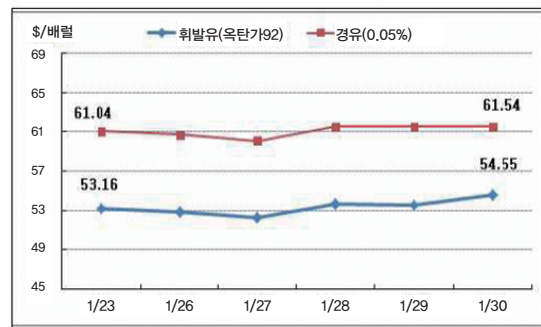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가 주춤한 것은 세계 경기둔화 우려와 주요기관들의 유가 하향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석유기업들의 연이은 투자 감소 소식이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 1월 28일 세계 주요 은행인 Barclays가 2015년 유가 전망에서 브렌트를 \$72/배럴에서 \$44/배럴로, WTI는 \$66배럴에서 \$42/배럴로 하향 조정했으며, Goldman Sachs 또한 2015년 상반기 WTI 가격을 주요 투자은행 중 가장 낮은 \$40/배럴 수준에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201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 등 비전통적 원유의 생산 증가로 공급기반은 확대되고, 세계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원유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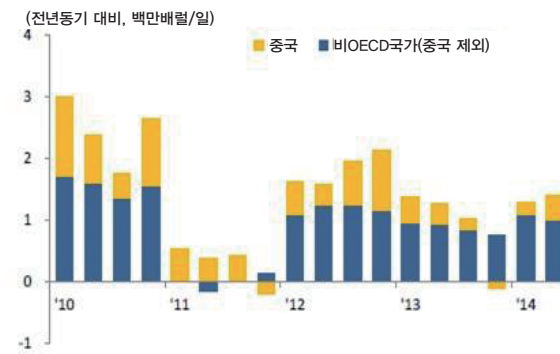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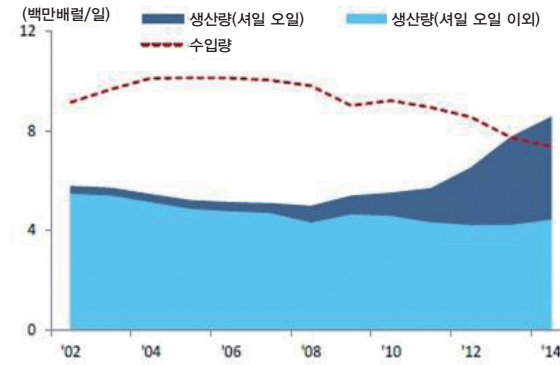


자료: Reuters, 한국석유공사



KT trade union

16
17



중동 산유국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생산단가가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생산량을 늘린 데는 석유 생산 기술력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인한 생산단가의 하락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시아 압박을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석유 수출로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는데(전체 수출에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 미국의 견제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서방제재와 저유가에 따른 경제위기로 러시아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을 정도다.

이 밖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석유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요 증가를 주도해 온 중국, 인도 등 비OECD 국가들도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는다.

국제 유가 하락은 러시아를 곤경에 빠지게 했지만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은 생산성을 이유로 접었던 제조업이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국제 유가하락, 국내 경제에 어떻게 작용될까?

GDP 대비 원유수입 비중(2013년 기준 7.3%)이 높은 국내경제에 있어 공급증가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은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대부분 판단하는 모양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가하락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경제의 수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국내 경제의 성장률 및 소득은 각각 0.2%p 및 0.3%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경상수지 흑자폭 또한 50억 달러 가량 확대된다고 한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0.1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제품에 전가하지 않는 경우, 경제 전체 구매력 10조4,000억 원 증가 및 1가구당 연간 17만원 안팎의 구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 생산비용 감소 역시 예측된다. 유가 10% 하락 시 전체 산업에서 0.67%의 생산비용 감소가 예상되며 제조업은 1.04%의 생산비용 감소가 예상됐다. 석유제품(-7.92%), 석유화학(-2.02%), 운송업(-1.03%)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제조업 수출 역시 0.55% 증가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지급부담(경상수지+단기외채) 대비 외화보유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유가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대 산유국 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산유국 경기 부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유가 하락은 국내 경제에 작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석유화학, 조선, 해운업의 부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재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생산비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가능한 한 빨리 반영되도록 물가구조도 변화를 가져와야 가능할 것이다.

마이스터를 꿈꾸는 나는야 딸바보!

강남지방본부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지부
동수원운용팀 박용운 조합원

10년 동안 전기설비를 담당하며 회사와 동료들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박용운 조합원. 어느 날 문득 통신기술팀원을 모집한다는 사내공고문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마침 통신업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던 차에 지원서를 내고 당당히 합격,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다. 통신을 배우고 말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그가 지닌 유일한 스펙이었던 뿐 사실 그는 통신의 '통' 자도 모르는 초보일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의지와 성실함으로 내일의 마이스터를 꿈꾸는 만능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무살박이 KT의 핵심인력

“95년 9월에 KT의 아들로 태어나 어느덧 스무 살 청년이 되었어요. 현재 동수원운용팀의 핵심인력이자 딸만 셋을 둔 딸바보랍니다.”

박용운 조합원이 재치 있게 자신을 설명한다. 박 조합원은 입사 후 당시 분당전화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며 KT 식구로의 첫 보직을 맡게 되었다. 입사 전 전기공사 현장에서 전력설비를 시공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전신인 한국가스기술공업에서 전력설비 업무를 경험한 것이 KT에서도 메리트를 발휘해 전력설비 전문인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박용운 조합원은 광전화를 비롯해 ADSL이 개통될 무렵에는 전진배치사업장의 전원공급설계와 시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10년 동안 전력설비 한 가지 업무만을 계속하느라 무료함이 느껴졌고 통신운용업무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4년 사내 공모를 통해 가입자 전송시설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AMC팀에 지원하면서 그의 두 번째 업무인생이 꽃을 피우게 된다.

초보 통신일꾼의 좌충우돌 분투기

“전기를 다루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턱대고 통신을 하겠다고 하니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신업무에 대해 기초적인 이론조차 숙지하지 못한 저에게 어느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업무 적응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렇게 어리버리한 채로 한 달을 보낼 무렵 팀 선배님이 ‘광전화 잡음 장애신고를 해결하고 오라’며 저의 등을 떠미시는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장비 앞에 서있기만 하다가 복귀한 후 선배님이 ‘가서 뭘 했느냐’며 물어보시길래 솔직히 ‘장비만 쳐다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은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눈 감고도 알 수 있겠군’ 하시며 내일부터는 전화기로 직접 발신을 들어보고 노트북 들고나가서 명령어 입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봐. 돌아온 다음 그 결과를 꼬박꼬박 보고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조금은 가혹하기도한 선배들의 훈련방법에 처음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장애를 경험하고 장애의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박용운 조합원은 이를 악물고 차근차근 업무를 익혀갔다.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다시 몇 달이 지나면서 박용운 조합원의 마음속에 있던 생소한 장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열심히 배우려는 박 조합원의 부지런한 태도에 동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은 박 조합원은 전기설비와 관련된 통신업무에 대해 숙달된 업무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일하다가 막히면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길 반복하면서 2년 정도가 지나고나니 저 혼자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AMC팀에서 5년 동안 일한 후 조직이 개편되면서 초고속시설 기술지원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이곳에서 유선엑세스망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T에 입사해 전력설비 담당을 시작으로 가입자전송시설 및 초고속시설 기술지원, 유선엑세스망 유지보수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던 덕에 고장 조치 시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걸음마를 떼고 기기망 전문가로 등극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만큼 박용운 조합원의 업무 카테고리는 매우 넓다. 유선엑세스 시설 운용과 현장개통AS 업무지원 및 기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직영개통, 그리고 협력사 공사관리 업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큰 틀에서의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업무상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말기, 계통 프로세스 등을 다 파악하는 것은 물론 천차만별인 설정값을 꿰차고 있어야만 협력 업체를 상대로 원활한 기술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반면 고객을 상대할 때는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령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을 처리할 때 '기가 인터넷을 설치했음에도 전송속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고객님의 컴퓨터가 낮은 사양이라 그런데요. 기가망이 굵은 파이프 라면 고객님의 컴퓨터는 가느다란 파이프라 병목현상이 생겨 데이터전송이 그만큼 느린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KT가 제공하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는 1기가급 초고속 기가망을 포함해 컴팩트 500메가, 일반 100메가 광랜 및 그 이하의 ADSL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최근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기가망의 경우 그 엄청난 속도만큼이나 예민한 설비 때문에 간혹 장애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한다.

올해의 목표는 마이스터 획득

수많은 업무를 경험하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박용운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게 마련이다.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거나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장애에 직면할 때 박

조합원이 취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자문을 얻는 것이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동료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도움을 받으려면 그 전에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평소 동료가 어려운 일을 맡게 될 때 흔쾌히 그들을 거들어주며 유대관계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일에 열중하는 스타일이면서 사실은 남들에게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동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일이 끝난 후 가끔씩 소주 한잔 기울이며 업무내용도 공유하고 우정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박용운 조합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잘 알고 있는 유능한 직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꿈꾸는 목표는 사내 마이스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저는 전기산업기사와 초고속분야 Pre-Meister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꼭 마이스터 자격을 꼭 취득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마이스터에 도전했다가 아쉽게도 최종단계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어요. 탈락한 후 여러모로 준비

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조합원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워 부지런히 도전하는 박용운 조합원은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진정 'A+'를 받을 만하다. 그렇다면 집에서 어떤 점수를 받고 있을까. 가장으로서 딸바보인 박용운 조합원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몇 시에 일이 끝나고 집에는 언제 들어오는지 제게 전화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끝나봐야 알아, 일 끝나고 전화할게'라고만 대답할 뿐 귀가시간을 기약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처럼 휴일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캠핑을 가려고도 했지만 장비만 잔뜩 사놓고 지금껏 캠핑 한 번 제대로 떠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가족을 위해 시간을 많이 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지더군요. 올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전국일주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 하이킹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관계자 및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어려움을 이겨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동료들 간의 소통과 힐링을 통해 아침에 출근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 노력했으면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올레 기가 인터넷

차이를 경험하세요!



GiGA internet이란?



초광역 가입자망 기술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100Mbps를 초과하여 **최대 1Gbps 속도**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GiGA internet이 좋은 이유

- x10배 인터넷 속도**
업/다운로드 속도 최대 1G!
Full HD 영화도 30초면 OK!
- x3배 WiFi 속도**
밖에서는 광대역 LTE-A로
집에서는 GiGA WiFi로 데이터 걱정 끝!
- x4배 olleh tv UHD 화질**
Full HD보다 선명하고 실감나는
UHD도 끊김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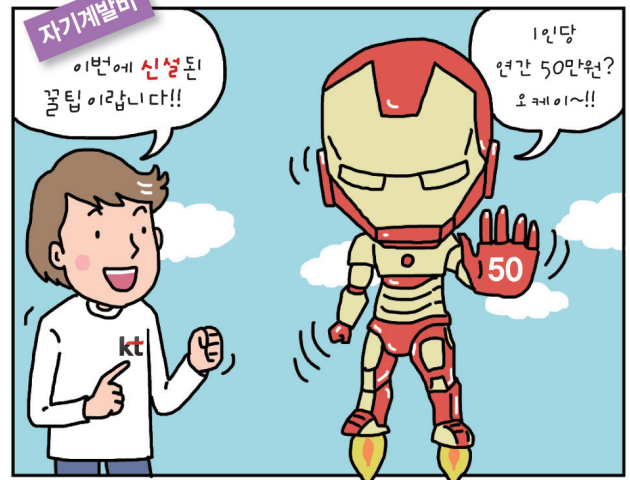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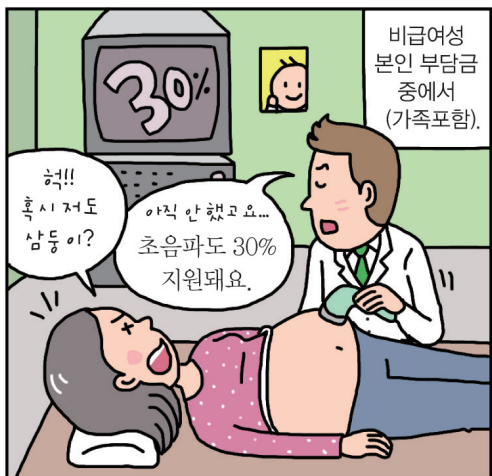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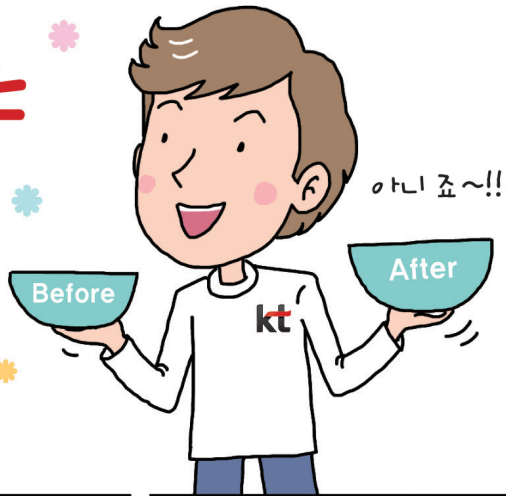
이렇게 추천해드려요!

기가 인터넷, UHD tv, 집전화까지 35,000원(부가세 별도)이면 끝!

+
 +
 = **35,000원**

GiGA internet 25,000원 + GiGA UHD tv 9,000원 + 집전화 1,000원

2015 복지 분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돌부리 치우고 가겠습니다! 2015년 새롭게 출발하는 본사지부

새로운 시작에는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응원의 박수가 필요하다. 시작은 두려움이 절반이기 때문이다.
2015년, 두려움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기운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알찬 맘을 흘리는 본사지부를 소개한다.



아래줄 왼쪽부터 임준섭 조직부장, 노일철 지부장, 김은정 여성부장
윗줄 왼쪽부터 김경복 집행위원, 신경우 지원부장, 김동현 대의원

남다른 열정으로 뭉치다

2015년 본사지부의 첫 발걸음은 사람 대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다. 조합원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이야기해야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노일철 지부장의 철학 때문이다. 그에게 3년이라는 임기는 어느 때보다 짧고 소중한 시간만 하다. 전국에 퍼져 있는 1,800여 명의 조합원이라는 규모 앞에 잠시도 한눈팔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일철 지부장은 99년에 입사해 제7대(1999년) 노동조합 통신망관리단 지부 홍보부장을 시작으로 8대, 9대, 10대, 11대, 12대 지부장직을 수행했다. 지난해 본사지부가 만들어지고 인원이 많은 만큼 애로사항도 많은데 이를 해결해줄 조합간부는 없고, 고민하던 중 직접 나서기로 했다. 지난 12월 선거에서 56%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은 선배의 권유로 시작했어요. 당시 생존을 위해 싸우던 선배의 활약에 많은 공감을 했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죠. 조합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전임 선배 지부장님을 보면서 조합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999년부터 시작된 ‘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조합원과의 소통은 이것인데.’, 라는 고민이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했다.

젊은 조합원이 우리의 미래다

본사지부는 다른 지부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 중 50% 이상이 10년 미만의 젊은 조합원이고, 경력직 직원들 또한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지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합원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최대 화두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부터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한 모임” 가칭 “조소모”를 통해 조합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첫 마디를 꺼내기 힘들어서 그렇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

었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단발성 계획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건물 단위 모임을 매월 1회씩 진행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4대 본부에 사무실도 마련했다.

“조합원과의 미팅 중 가장 힘든 점이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늦다는 것이에요. 기관별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지방본부나 중앙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있기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말은 조합원의 발이 되어 뛰어야만 조합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재차 강조하는 노일철 지부장. 그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내 게시판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얼굴 보고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다.

작은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되는 과정을 조합원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쌓여 신뢰가 되리라 믿고 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떠난 조합원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에 관심 없는 젊은 조합원도 함께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한다.

임준섭 조직부장은 “젊은 조합원들은 실현되기 힘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며 “작지만 꼭 필요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을 보여주고 참여를 이끄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물론 본사지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젊은 조합원들과 함께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선배 조합원들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일주일씩 각 본부에 머물면서 전체 조합원을 만날 예정이라는 노일철 지부장은 애로사항이 들리면 어디든 뛰어다닐 생각이다. 분면 1,8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하기 위해 3년은 짧은 시간 일 수 있다. 더욱이 조합원 한명 한명을 만나는 것은 조합에 대한 불신을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시간이기엔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다. 3년이란 시간이 앞으로의 노동조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과정이기엔 기대해 본다.

미래를 향한 소통의 공간 KT 신사옥 광화문 East를 만나다

지난 1월 26일 KT 신사옥 광화문 East의 공식 입주 행사가 열렸다. 통합보안, 스마트에너지관리, 차세대 미디어까지 구현된 KT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자, 새로운 근무환경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변화의 공간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다. 그리고 공간에서 생활하는 직원 간의 대화, 팀 워크, 리프레쉬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 공간으로써 '중정 커뮤니티'를 실현하는 Interactive Space,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공간까지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건축 콘셉트가 아닌 KT가 생각하는 내일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공간의 의미와 특성을 담아 쉽게 부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공간에 대한 이름도 부여하고 있다.

최고의 전망이자, 리프레쉬를 즐기는 공간인 스카이가든은 Roof Top, 직원 업무, 복지 지원시설이 모여 있는 13층 서포트 센터, 오디오리움 등 멀티공간이 배치된 12층의 미팅 플로어, 협력사 미팅룸, 발굴 유물 전시를 하게 될 지하 1층의 비즈니스 라운지, 지하 2층의 더 키친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생활할 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느낄 수 있다.

미래 역점 사업을 온몸으로 만나는 사옥

바쁜 출근 시간, 더는 빨리 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눈치를 보거나, 층수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 사원증을 출입구에 갖다 대면 출입구 화면에 탑승 엘리베이터 위치가 뜨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자동으로 사무실 층수가 입력되는 스피드게이트. 무선 침입방지 시스템을 통해 외부 해킹공격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CCTV로 응급상황 중계하고 관리자에게 자동 연락하는 통합 보안시스템. 채광량에 따라 블라인드가

KT 광화문 East 사옥의 건축 콘셉트는 '2개의 정원과 크리스털 파사드'로 설명된다. 2개의 정원은 대형 건물로 인한 지역단절이 아닌 건물 관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상의 Urban Garden과 광화문 하늘길을 만날 수 있는 옥상에 마련된 Roof Garden, 고객과 소통하는 기업의 투명성을 상징하는 크리스털 파사드가 그것

자동으로 조절돼 사무실 온도가 관리되고 재실 센서를 이용해 사람이 없는 곳은 조명이 꺼지고, 많은 곳은 조명을 밝혀줌으로써 업무환경은 쾌적하게, 에너지 비용은 줄여주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까지. 이상의 첨단 시스템은 단지 KT 임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기술이다. 먼저 사옥에서 효용성을 입증한 뒤 외부에 판매하게 된다.

tip 01 소통을 위한 디자인

광화문 East 사옥의 디자인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난감 '큐빅 퍼즐'을 닮은 건물 모양은 대형 건물의 육중함에서 벗어나 가벼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물 전면 유리를 사용해 투명성을 살렸다. 1층을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으로 지탱하는 공간)로 설계한 뒤 나무를 심었고 산책로 구릉 등 개방 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1층이라고는 하지만 비운 공간의 높이가 12m로 아파트 3~4층에 해당한다. 1층과 지하 1층 바닥은 투명한 유리로 깔았다. 유리 아래로 사옥 터 공사 당시 발견된 조선시대 집터를 보여주는 유구(遺構)를 만날 수 있게 한 것이다. 발견한 유물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지하 1층에 별도의 전시관도 마련했다. 외형적으로 단절이 아닌 소통 가능한 디자인이 접목되었고 내적으로는 역사와 관통하는 공간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사옥은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를 설계한 이탈리아의 세계적 건축가 렌조 피아노와 국내 건축설계업체 삼우가 공동으로 설계했다.

tip 02 지난 세기의 생활을 엿보다

광화문 East 사옥 터는 조선시대 육조거리(현 세종로) 시전행랑 등과 인접한 곳으로 조선시대 고위 관료 또는 부유한 상인 계층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인 공간이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지는 4개의 문화층에서 조선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와 113점, 자기 820점, 도기 26점 등 총 1,089점의 유물

이 출토됐다. 향후 지하 보행로를 통해 전시관을 세종 이야기, 충무공이야기 등 세종로 주요 문화시설 및 광화문역과 연결할 계획이다.

tip 03 거장과의 만남

광화문 East 사옥은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국내 첫 작품이다. 그는 2006년 타임지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하이테크 건축의 대가로 프리츠커 아키텍처 프라이즈, 미국 건축가 협회AIA 골드 메달, 교토 상, 소닝 상을 받았다. 세계 5대 건축물 중 하나인 뉴칼레도니아의 치바우 문화센터도 그의 작품이다. 건축 평론가 니콜라이 오로소프는 "그의 최고의 건물들이 주는 평온함은 우리가 문명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F, URBAN GARDEN LOBBY



RT, SKY GARDEN

한국 프로야구의 '10번째 심장' kt wiz! 신비롭고 강력한, 상상의 야구를 보여드립니다

프로야구 개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3월 중순 2주간의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3월 28일 지난해보다 팀당 16경기가 늘어난 대장정이 시작된다.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설렌다. 수원 연고의 프로야구 '10번째 심장' kt wiz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kt wiz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새로운 구단이 온다

kt wiz는 지난 2013년, 비상한 솜씨와 비범한 재능을 가진 마법사, wiz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새로운 구단의 탄생을 위한 kt wiz의 노력은 출범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주목받아왔다. 마술사가 아닌 마법사의 등장처럼 말이다. 그중 수원 시민은 물론이고 야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복합 문화공간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옷을 갈아입은 수원 kt wiz park다. 외형적으로는 관객석이 1만 4,000석에서 2만 석으로 늘었지만 그 내부에는 그동안 부러운 시선을 바라만 봤던 메이저리그와 해외 유명 스포츠 시설을 적극 벤치마킹하였다. 스카이박스, 외야 스포츠 펍, 옥상 스탠딩석 등 관객 중심의 시설들이 빈틈없이 들어섰다. 여기에 '빅 테인먼트(BIC Tainment)'

기술이 적용되어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변신 중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입장한 관중에게 구단 알림 사항, 구장소개, 본인 좌석 정보 확인, 입장 매장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GiGA 비콘서비스와 기존 WiFi 대비 3배 빠른 GiGA WiFi 구축으로 2만여 관중이 동시 접속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여기에 3월 출시 예정인 위젯은 예매, 결제, 발권 기능을 가진 스마트티켓, 자리에서 주문 배달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실시간 중계 및 MLB 급 누적 기록 및 선수 팬 페이지가 제공된다. 위젯을 다운받은 고객은 스마트티켓(바코드 혹은 NFC)을 활용해 야구장 내 스피드게이트를 통해 바로 입장할 수도 있다. 직물 방수용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를 삽입한 팬용



운동장 투시도

유니폼은 벌써부터 화제다. 스마트폰을 유니폼에 접촉하면 선수 소개, 미공개 사진과 영상, 팬 페이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신흥 명문구단을 위한 준비


기대 가득한 외형만큼이나 내적인 준비, 즉 구단의 마인드와 구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준비 또한 만만치 않다. kt wiz는 단기간의 성과는 바라지도 않는다. 창단 과정에서 경기도 민과 수원시민들이 보내준 성원과 기대 또한 당장의 성적보다는 어느 구단보다 단단한 기본을 갖춘 명문구단이 되기 위한 중장기 플랜을 준비하게 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선수를 길러

낼 수 있는 시설투자는 기본이다. 경기도 여주에 홈구장, 보조 경기장, 트레이닝 센터와 식당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춘 2군 전용 연습구장의 건립은 시스템 야구 육성을 기반으로 명문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준비다. 여기에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과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우승으로 이끈 조범현 감독을 수장으로한 코치진을 구성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선수단과 코치진, 그 열정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팬이 있고, 개념이 다른 구단의 지원으로 2015년 첫 시즌을 맞이하는 kt wiz. 어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개막일이 기다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kt wiz history

Emblem



2012
11월 프로야구단 창단 발표 기자회견 및 경기도, 수원시와 MOU 체결
12월 KBO 이사회, 프로야구 10구단 승인 및 프로야구단 창단 추진 위원회 발족

2013
01월 KBO, 'kt 프로야구단 창단 만장일치 승인'
03월 kt 프로야구단 명칭 대국민 공모
05월 공식 구단 명칭 'kt wiz' 확정
11월 구단 BI 발표회

2014
02월 kt wiz, 첫 연습경기 실시 (vs NC dinos)
03월 kt wiz 출정식 행사 진행
04월 퓨처스리그 개막전 진행 (vs. 경찰청), 첫 홈 경기 진행 (vs. SK)

kt wiz Symbol은 두 가지다?

kt wiz의 심볼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니셜 심볼과 이미지 심볼.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따로 사용하는 것이 새롭다. 이니셜 심볼은 k와

w 두 글자를 이용하여 강력한 마법 문장이 연상되도록 디자인되었고 원정경기의 모자와 유니폼에 사용된다. 이미지 심볼은 전형적인 마법사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현대적인 마법사의 모습을 새롭게 해석했다. 신속한 기동력과 유연함을 강조하며 홈 경기의 모자와 유니폼에 사용된다.

Image symbol



Initial symbol



이야기가 있는 마스코트

kt wiz의 마스코트 또한 두 가지로 '빅(vic)'과 '또리(ddory)'로 이름 지어졌다. 함께 있으면 '빅토리'로,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Victory)'가 연상된다. 마스코트에는 탄생 스토리도 있다. 수원 야구장에 살고 있던 작은 몬스터 두 마리가 어느 날 우연히 마법의 심볼을 갖게 되면서 KT를 승리로 이끄는 응원단장 '빅과 또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kt wiz가 궁금하다

■ 왜 구단 이름이 kt wiz인가?
wiz는 wizard의 축약형으로 마법사를 뜻한다. 비상한 솜씨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kt wiz의 k는 왜 소문자일까?
고객 눈높이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대문자인 K에서 소문자인 k로 변화했다. 고객 중심의 기업이 되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
■ 요즘 선수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지난해 남해-미국 애리조나-대만 캠프부터 제주도 마무리캠프의 강도 높은 훈련에 이어 1월부터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차렸다.
2월 중순부터 일본 오릭스, 라쿠텐, 소프트뱅크 등의 일본 팀들과 연습경기를 치렀고 2차 캠프지(가고시마)가 겹치는 롯데 자이언츠와도 4경기를 치른다. 지옥훈련을 일상으로 여기며 지내온 시간이 빛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 젊은 신인선수들이 많은데, 구단 분위기는 어떤가?
신생구단 특성상 어린 신인선수들과 야구의 절실함을 느끼고 다시 시작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라 훈련 시간 이후에도 개인 훈련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만큼 열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지훈련을 통해 큰일(?)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 팀 분위기 메이커로 뽑을 선수와 기대되는 선수는?
항상 유쾌한 포즈로 kt wiz 선수들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송민섭 선수가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 구속이 152km에 이르는 안상빈 투수와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다승, 탈삼진 1위에 오른 박세웅 선수, 훈련, 최다안타, 도루, 득점 1위에 오른 김서연 선수의 활약이 기대된다.

워크맨을 추억하며 내 손 안의 음악 여행이 시작되다

음악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인생에 있어 많은 추억을 함께 한다. 워크맨은 8~90년대 많은 젊은이들의 개인 일상에 음악을 추억으로 남게 한 수단이었다. 이 혁신 제품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기술력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이제 MP3나 스마트폰에게 거의 모든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반세기 가까이 감성까지 선사한 공로는 인정받을 만하다. 자기 중심적 문화의 시초 역할을 하면서 현대 사회의 대면 소통을 줄여온 부작용도 거론되지만 말이다. 워크맨은 지금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준 선물로 기억에 남게 될까.

#1. 신나는 댄스파티 현장. 모두가 춤을 추고 여자 주인공도 함께 댄스 삼매경에 빠져 있다. 그때 홀연 나타난 첫사랑의 남자. 그녀의 귀에 헤드폰을 끼워주고 로맨틱한 음악을 선사한다. 영화 '라붐'의 유명한 장면이다. 1980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에 워크맨이 없었다면 이런 장면이 나오긴 힘들었을 것 같다. 휴대용 음악 재생이 가능했기에 주변의 번잡스러운 파티 현장에서 로맨틱한 노래를 연인에게 선물할 수 있었다.

#2. 이번엔 여자가 남자에게 이어폰을 끼워준다. '이젠 버틸 수 없다고~'라는 노랫말이 흐른다. '기억의 습작'을 들으며 둘은 함께 서로에 대한 첫사랑의 애뜻한 감정을 공유한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한 장면이다. 음악으로 공감한 '기억'은 어느새 사랑의 '습작'으로 남는다. 여기에도 워크맨이 등장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세트에서 CD 플레이어로 진화된 모델이 선보여진다.

#3. 워크맨은 일상도 영화 장면으로 만든다. 사춘기 시절, 비오는 날 버스에 올라 워크맨으로 음악을 듣자면 주위 풍경은 영화의 한 장면이 된다. 뭔가 고되고 치열한 상황에서도 음악 선율이 없혀지면 따뜻했던 기억으로 떠올려진다. 워크맨은 그렇게 8~90년대 청춘들에게 음악과 얽힌 많은 사연을 만들어내며 한 세대를 풍미했다. 이제는 추억의 전자제품으로 역사에 남게 됐지만...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듣게 하다

길거리에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운동 중에도,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 80년대 당시 혁신이었다. 당시 젊은이들의 만족도가 높아 입학, 졸업 선물로 요구하거나 알바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장만하려던 시도도 많았다. 워크맨은 개인 중심 문화의 장을 넓히며 8~90년대 음반 시장의 중심축 역할까지 한다. 사실 워크맨은 놀라운 발명품이라고 보긴 힘들다. 집 안이 아닌 밖에서도 헤드폰을 쓰고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카세트 크기만 줄인 단순 발명품이다. 점차 크기를 줄이고 다양한 기능을 장착하면서 고성능으로 발전되긴 했다.

워크맨은 1979년 소니에서 초기 제품을 출시했을 당시 가격이나 성능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하지만 1981년을 기점으로 전세기는 워크맨 열풍에 휩싸이게 된다. 기존의 모든 판매 기록도 경신해 2006년 3월 카세트 워크맨이 단종될 때까지 약 200종의 워크맨이 나왔고, 누계 3억3천만대를 판매하는 대기록을 세운다. 소니 외에도 파나소닉, 아이와 같은 일본 업체 제품과 국내에서는 삼성의 '마이마이', 금성사(현 LG전자)의 '아하프리'라는 유사 제품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워크맨도 과거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진 못했다. 2003~4년을 기점으로 MP3 플레이어가 대중화되면서 워크맨의 수요는 급속히 떨어진다. 국내 업체는 2003년부터 일찌감치 생산을 중단했다. 대신 대부분의 업체가 MP3 플레이어 생산으로 돌아선다. 소니만이 남아 카세트 워크맨을 생산했으나 2010년에 이르러 제조 및 생산이 중단된다. 최근 소니가 고가의 오디오 플레이어 워크맨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원조' 워크맨의 명맥은 2012년에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사용자 편의 중심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도약

소니로부터 시작돼 소니로 끝난 워크맨의 30년 역사는 나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 음악을 거리로 가져오게 했고, 일상에 감성을 싣도록 만들었다. 젊은 세대들도 누구나 음악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대중가요의 붐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1인용 가전제품으로 첫발을 내디딘 워크맨은 글로벌 마케팅이 이뤄진 사례이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로 대대적인 마케팅이 이뤄지며 현대인들의 삶에 녹아들도록 했다.

보통 워크맨은 애플의 아이폰과 비교되기도 한다. 불과 15년여 전만해도 세계적인 전자기기 아이콘이었지만 이제 애플에게 '혁신'의 자리를 내주게 됐다. 이제 하드웨어에만 집착하기보다 사용자 중심의 편의에 비중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에게 보다 뛰어난 경험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기기가 우수해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워크맨을 두고 "이 작은 판도라의 상자는 젊은이들에게 미이즘(meism)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자기 안에 고립되는 수단으로의 역할을 하진 않았는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워크맨에서부터 이어진 개인화 제품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에 이르러 자기주의의 과도한 모습을 자주 보게 한다. 이제는 귀뿐만 아니라 온갖 감각을 작은 디지털기기 안에 잡아놓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감성적 개인의 세계를 넓히는데 도움을 줬으나 '우리'의 소통을 줄이게 된 점은 아무래도 아쉽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보다 '우리'를 좀 더 가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아우어리즘(ourism)의 기기는 나올 수 없을까. 처음 워크맨이 개발됐을 때처럼 우리 주변에서부터 찾아보면 또 다른 혁신도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한다.



얼었던 몸과 마음의 생기를 깨우자

봄 기운 가득한 3월 제철 맞은 건강 식재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이 지났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예로부터 입춘이면 동풍이 불고 얼음이 녹아 동면하던 물고기가 깨어난다고 전해진다. 자연은 이미 봄을 맞을 채비가 한창이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겨울의 생체리듬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인지 봄이면 이유 없이 나른하고 입맛을 잃는 등 우리 몸은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점심시간 이후 찾아오는 춘곤증이 극심해지기도 한다.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깨우는 데에는 맛과 향이 진한 봄나물이 제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인 '달래'와 면역성을 높여주는 '겨자잎', 혈액순환을 돕는 '미나리', 노화예방에 좋은 '무순' 등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겨우내 꽂꽂 얼었던 땅에서 강인한 생명력으로 움튼 봄철 식재료는 그 자체로 최고의 약재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재와 식재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 효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른바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 하여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말이다. 보통 쓴맛이 강한 뿌리 부분은 약재로 쓰고, 씹싸래한 잎은 음식으로 먹는다. 대표적인 봄나물인 땅두릅의 새순은 살짝 데쳐 숙회로 먹고, 뿌리는 독활(獨活)이라 불리는 한약재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제철에 나는 식재료는 계절에 맞는 기운을 보충해 줘 보약보다 나은 명약이 된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절기음식

우리 조상들은 '입춘절식(立春節食)'이라 하여 입춘이면 갓 돌아온 햇나물을 먹으며 봄을 맞이했다.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돋워 주고 겨울 동안 부족했던 무기질과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한 풍습이다. 궁중에서는 오신반(五辛盤)을 수라상에 올렸다고 한다. 오신반은 읍파(겨울에 읍속에서 자란 빛이 누런 파), 무초, 승검초(당귀쌈), 달래, 평지(유채), 부추, 무릇, 마늘, 자충이, 미나리 등 입춘 무렵에 자라는 어린 싹 중 맵싸하고 쓴맛이 강한 다섯 가지 나물을 겨자에 무쳐 먹는 음식이다. 민가에서는 파, 겨자, 당귀의 어린 싹을 무친 세생채(細生菜)를 만들어 이웃과 나눠 먹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생기의 계절에 걸맞게 우리 몸을 깨워줄 제철 재료들을 찾아 길을 나서보자.

봄동 봄동은 노지에서 겨울을 나 숙이 차지 않은 배추다. 가을 배추 보다 약간 두껍지만 줄기와 잎이 부드러워 생채로 즐기기에 그만이다. 된장국이나 나물, 곁절이 등으로 요리하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한 겨울 매서운 바람과 눈

서리를 맞고 자란 봄동은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 무더지고 느슨해진 몸의 기운을 자극해 준다.

달래 달래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물로 특 쓰는 매운맛과 알싸한 향이 미각을 자극한다. 달래는 예로부터 '들에서 나는 약재'라 하여 봄이면 가장 먼저 임금께 올리던 진상품이었다. 한방에서는 소산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소화와 해독작용을 한다. 달래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니아신, 알리신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무기질이 풍부하다. 특히 달래에 함유된 알리신은 항산화기능으로 면역력을 높여준다. 달래에 풍부한 비타민C 섭취를 위해서는 생으로 무치거나 식초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참나물 참나물은 그늘지고 습기 많은 곳에서 자라는 미나리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의 영양소가 다량으로 함유된 친환경 건강식품이다. 참나물은 특유의 진한 향과 씹싸래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 연한 잎을 잎자루와 함께 생으로 씹을 싸서 먹거나 곁절이로 무쳐 먹기도 하고 데쳐서 나물로도 먹는다. 참나물은 이른 봄 입맛을 살려주는 별미로 꼽힌다.

돌나물 돌나물, 또는 수근초라고도 부르는 돌나물은 땅에 붙어 자라는데 번식력이 왕성하다. 돌나물은 잎, 줄기, 뿌리를 모두 채취해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을 한다. 돌나물은 예로부터 김장김치가 떨어지고 헛김치가 나오기 전, 이른 봄에 김칫거리로써 요긴하게 사용되어 왔다. 아삭하고 시원한 돌나물 김치로 봄철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다. 단백질, 지질, 당질, 섬유질, 회분 등이 함유돼 있다. 특히 비타민C와 인산이 풍부하다.

취나물 취나물은 단백질, 칼슘, 인, 철분, 비타민B, 니아신 등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이다. 맛과 향이 뛰어나 산나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취나물에는 참취, 개미취, 각시취, 미역취, 곰취 등이 있는데 그 중 곰취는 맛과 향이 뛰어나 산나물의 제왕으로 불린다. 취나물은 살짝 데쳐 쓴맛을 없앤 후에 갖은 양념에 무치거나 볶아서 먹는다. 감기, 두통 등에 진통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도 이용된다.

삼주 '산에서 나는 삼주싹과 더덕은 머느리 주기 아깝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삼주는 산나물 중에서도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삼주는 백출, 창출이라고도 불리는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뿌리 줄기에 함유된 방향성 정유 성분인 아트라틸론이 후각을 자극해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삼주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데, 쓴맛이 있으므로 여러 번 물을 갈아 데쳐서 잘 우려낸 다음 간을 해서 먹는다. 생채로 먹으면 쓴맛이 오히려 입맛을 돋우어 준다.



달래



참나물



돌나물



취나물



삼주

kt chamberhall

감미로운 클래식 향연, kt chamberhall 에서 감성을 충전하세요!

kt체임버홀은 문화의 향기를 전파하고자 2009년 5월 KT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조성한 문화 나눔 공간입니다.

KT체임버홀 정기공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리는 'KT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후의 실내악'은 예술의 전당 출신의 콘서트 가이드 김용배 교수의 전문적인 음악 해설과 KT chamber orchestra의 수준 높은 연주, 유명 작곡가들의 교향곡 전곡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티켓

VIP석 20,000원 | olleh 멤버십 카드 회원 50% 할인
일반석 10,000원 | olleh 멤버십 카드 회원 30% 할인
(초 중 고 30%, 단체 10인 이상 10%할인 *중복할인 없음)

공연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옥션티켓 1566-1369
예스24 1544-6399 |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1577-4579 www.ktchamberhall.com



KTTU QUIZ

연면적 5만1120㎡에 지상 25층, 지하 6층 구조로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열게된 신사옥 명칭은?

정답 보내주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똑똑한 나의 웨딩플래너 다운플랜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플랜이 준비해 드립니다.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다운플랜 웨딩서비스 안내

- 추가 비용없이 가입상품으로 결혼 준비 모두 해결
- 스·드·메 및 리허설/본식 헬퍼비용, 웨딩카 또는 원본 CD, 폐백 음식 또는 DVD 제공
- 전국 웨딩홀 및 웨딩업체 업무 제휴로 전국 행사 가능
- 전국 웨딩홀 무료 섭외 및 할인혜택 제공
- 전문 웨딩플래너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웨딩 플래닝 서비스 제공
- 웨딩서비스는 다운 1호, 다운 1-13호(300만원 상품)으로 이용 가능
- 결혼 관련 문의는 1577-1555(내선번호 2번)로 문의

 다운플랜

(주)다운플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본사 2층 (주)다운플랜
TEL. 1577-1555, 031-727-4803~4 FAX. 031-727-4809